

격려사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



〈申樂均 장관〉

존경하는 한국도서관협회 사공 철(司空哲) 회장님, 이용남 한성대 총장님, 유경환 문화일보 논설위원님,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도서관인들과 내빈 여러분!

오늘 한국도서관협회가 제49차 정기총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나라 도서관문화 창달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도서관인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천년기는 문화가 국가 사회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지식과 정보에 앞선 나라가 세계사를 주도해 나가는 지식정보시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전이(轉移)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도서관의 위상과 기능도 커다란 변천을 겪고 있습니다.

종래 서지(書誌) 정보의 수집, 보관, 열람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던 도서관의 역할이 오늘날에 와서는 정보자료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정보 수요자들에게 동시에 다량의 정보자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변모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지구차원의 국경없는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민족간에 생존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누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보다 신속히, 그리고 보다 많이 획득하고 활용하는가가 국가와 체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중추기관이 곧 도서관이라 할 때 도서관의 책무와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정부는 지난 1993년 自國의 정보화 기본방향인 국가정보화 기반구조(NII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994년에는 세계 정보화 기반구조(GII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고속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는 도서관을 중심축으로 하여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각급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

니다마는 이 국책사업(Project)이 “도서관에서 시작”하여 “도서관에서 끝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전 미테랑 대통령도 취임할 당시(1988년) 최대의 국가사업 제1호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신축사업을 채택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술·정보·지식을 집약한 국립도서관의 건립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입니다.

초고속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국가 문헌정보의 전산화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전자도서관 체계의 구축과 발전을 통하여 전국 각급 도서관 협력망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며, 분야별 소장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와 이용체계를 확충하는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6조)에 의한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전통적인 서지정보의 수집·보존·관리 서비스 기능을 보다 효율화함은 물론, 새롭게 다가오는 문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 정보의 전산화와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 전국도서관 전산화 확충 등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은 물론, 전문·특수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전국 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능의 정립에 있어 선도적인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확충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은 매우 시급하며, 이의 성공여부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 도서관 정보전산화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도서관이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서관인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심분 이해하시어 앞으로도 도서관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실현함에 있어 핵심 기반 시설인 전국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2011년까지는 인구 6만명당 1관 수준을 실현하고,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확충과 국민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서관문화의 발전은 재정투자나 제도정비 등 정부의 정책지원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와 땀방울이 함께 모아질 때 우리의 도서관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들어 출판사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판과 도서관은 서로 떼레야 뗄수 없는 상보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 지식산업의 핵심 출판산업은 국민독서진흥을 통하여 도서관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출판산업의 기반구조(Infrastructure)로서의 측면에서도 도서관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증시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출판산업 지원의 중요시책을 하나로서 출판자료 구입 재원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하여 도서관 정보자료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출판산업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의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 동안의 생활태도를 재점검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발전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책속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일깨우면서, 도서관인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다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머지 않아 훌륭한 도서관문화를 가꾸어 감은 물론,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경제난국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정책적 배려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격려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한국도서관협회 총회를 맞아, 지식정보시대를 대비한 국민 정신문화를 선도하며, 성숙한 문화국가를 창달함에 있어 모든 도서관인이 합심단결하여 국가 문화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도서관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3월 27일

제34회 전국도서관 주간 표어(4.12~4.18)

도서관
국민문화복지의 요람